

**감사의 마음
답아
응원의 기운
답아**



**처음 치른
경기지부 감사위원 선거
성공적**



처음으로 경기지부 감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이전에는 선거없이 만장일치로 선출해왔다. 기존 관례·관행에 따라 만장일치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있었으나, 조합원이 1만을 넘어선만큼 금속노조 규약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 운영 및 관리는 노대현 지부 선거관리 위원장 직무대행이 맡았다.

선거 결과, **김기석(찬성률 96.9%)·김민규(95.7%)·김재우(95.1%)·남선우(95.1%)·송규철(96.9%)·이관호(95.7%)·임경택(93.9%)** 후보 7명 전원 당선됐다.



노조의 일상을 잘 알고 있다는 듯 핀셋처럼 쿡쿡 짚어 탄압하는 모양새다. 타임오프 시정지시로 조합 활동의 공간을 흔들고, 회계공시 압박으로 내부 논쟁과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다. 임법 거부·노조 거부·평화 거부 등 노골적인 '거부' 기조와 고용노동부의 노조 핀셋탄압이 한 세트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투쟁 결의를 끌어올리며 코리아에프티지회 몸짓패 '쌔쌔', 삼성서비스경기지회 몸짓패 '공구가방' 연합 문선을 진행했다.

경기지부 1만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정권과 노조탄압에 맞서 나서자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소식지 13기 3호

2024.03.25(월) | 발행인 경기지부장 이규선



한다면 한다! 1만의 도약!



3월 11일(월) 14시, YBM연수원에서 경기지부 40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168명의 대의원이 참가했다. 지난 2023년 활동을 돌아보는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2023년 사업평가,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지부 집단교섭 확대·강화를 기조로 한 공동 요구안 역시 확정했다.

4대 사업 - 투쟁·육성·회합·조직화

금속노조는 노동 사각지대,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를 끌고 당기며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자본의 이해에 적극 복무하며 노조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반노동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부는 **1)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반진평화 투쟁!**에 적극 복무할 계획이다. 탄탄하게 운영되는 선배 사업장은 신규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신규 노조 증대로 1만 조합원을 이뤘고 그만큼 많은 간부가 새롭게 활동하고 있다. **2)1천 간부 육성!-교섭위원 학교, 노동교실, 월간 교육지 발행으로** 간부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3)4월 조합원 체육대회로** 전조합원 단결과 화합을 이뤄내고, **4)전략적 미조직사업-삼성전자, 전기·전자 부품사 조직화 사업**으로 경기지부 확대는 멈추지 않는다.





질적 향상 초석을 다지는 계양전기대회를 만들자!

2024년 임단협은 고용안정을 지키고 노사가 더욱 상생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는 것이 큰 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입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공장이 나누어 근무하는 환경에서 조합원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할 것이다. 간부 및 조합원들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교육 사업도 진행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 확보를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사업을 연속하여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현장의 주인답게 행동하는 대한솔루션대회

5개대회와 사무직분회 단결은 더 공고히, 간부역량강화, 현장 조합원 일치단결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온 역량을 다해 퇴진 투쟁에 앞장 선다. 관성적인 사업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 진취적 사고로 조직하고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의 주인 주체로서 노동안전을 지키고 부조리를 바꿔내자! 자본의 착취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승리하자! 금속노조의 한다면 한다 정신, 경기지부의 1만 대오의 힘으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정형을 만드는 투쟁을 대한솔루션대회에서부터 조직하자! 투쟁!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대창대회

한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대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종종 벼랑이처럼 사는 조합원, 노동조합 조직력을 갉아먹고 의기투합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로 일관하면서 여기저기 탓만하는 조합원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다. 조합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함께 가자! 2024 임단투 승리를 위해 전조합원 단결투쟁, 대원산업평택지회

노동조합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간부의 단결이 그 출발이다. 3월 7일~8일 상집수련회는 결의와 포부를 몸소 느끼는 자리였다. 간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세우고 교섭에 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 단결에 큰 책임을 느낀다. 또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처참하게 묵살한 한국업티컬 머퇴 자본의 행태를 참을 수 없다. 대원산업평택지회는 전조합원의 목소리를 모아 연대하고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 우리 시업장은



동우화인캠프지회, '투명성과 정직성으로 올바른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자' 조합원들에게 투명한 정보 전달과 공정한 의사 결정을 약속하며, 노동환경에서의 안전과 정의의 강조하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근로 조건 개선, 안전한 근무 환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우화인 캠프지회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사공동 TFT를 통한 전문 검사직 임금체계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 단결! 노동.조합.동양피스톤분회

오해와 소문을 뛰어넘는 조합원과의 전면적 소통으로 노동조합 정책 다양성을 확보하자. 산업전환 시기, 피스톤사업과 신사업에 노동조합 의견을 접목시키자.



말레동현화성지회 세대교체로 집행위원을 젊게 꾸리고 청년위를 만들어 구/신세대 함께함을 아는 것, 그리하여 조합의 뜻을 같이한다는 목표다. 간부육성에 힘쓰며 지금까지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보람차게 만들려한다. 내연기관 산업이 내리막길이라해도 조합원의 뜻과 힘을 모아 미래의 먹거리를 잘 마련할 것이다. 각 부서에서 소통과 참여, 만남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미래 대비가 된 말레동현화성지회를 만들 것이다.



간부역량강화! 우리 모두가 주체로서 나아가다! 코리아에프티지회

24년도 임금/단체 협약으로 투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는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대리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간부로서 중심을 잡고 끝이 없는 간부역량강화를 통해 지식과 투쟁정신을 쌓아갈 것이다. 선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갈고 닦아온 투쟁 정신을 계승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투쟁하여 승리를 위해 달려가자.



소통! 공감! 동행! 우창정기지회 하나된 힘, 미래의 희망, 함께 만들어가자 24년!

고용안정과 조직강화를 위해 지역구 간담회 및 단합대회, 실천단 조회, 소체육대회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년이란 긴 시간동안 같이 걸어온 동지들과 하나된 힘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창정기지회가 되어보자.



모베이스전자지회는 신뢰와 믿음으로 전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희망찬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 및 확대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자세와 역할 교육',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동안전을 위해 건의사항, 소통 등 적극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호신뢰를 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의 실천입니다.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동지들의 수평적인 조직문화, 즉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전진하는 노동조합, 에스제이엠지회 실천의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며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노력할 것이다. 현장의 조직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간부들의 단결과 조합원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에너지를 더 높여 사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노동중심의 적정인력 유지와 정원유지 관철을 위한 고용안전 연구위원회를 마련하여 조합원들이 고용에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 되는 단결력! 철저한 투쟁 준비! 보그워너모빌리티코리아지회

투쟁의 처음과 끝은 조합원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관계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교육으로 간부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조직 체계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전환도 중요한 이슈다. 회사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계열사 간 교류로 공감대를 형성해 미래 준비 초석을 다지는 건 당연하다.



한국호아전자지회는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건강한 노동활동을 위해 함께 느끼고 즐겁게 활동하는 지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기 안전시찰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시합니다. 각 직군에 맞는 조직활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로 조합원의 단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쟁에 있어서는, 무논리 사측의 횡포에 대항하고자 선전활동을 중심으로 운용하며, 지부의 교육 지원을 바탕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P-GRADE 노동조합, 현대모비스화성지회

현대차그룹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던 덕분에 노동조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히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연대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가 높아진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하려는 사측의 시도도 자연스럽게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소통! 미래준비! 단결하는 현대모비스안양지회!

현장이 협소해 주차장 등의 시설 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템 생산까지 불투명하다. 지금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 안전하고 웃음나는 현장을 위해 언제나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또한, 타임오프 지정시 대응-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모비스 연대와 함께 흔들림없이 물러서지 않는다.



모든 조합원이 하나 되어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보그워너평택지회 목표는 모든 조합원이 하나로 더욱 단결되는 모습입니다.비조합원들도 우리 지회를 우러러 볼 수 있게 올해도 열심히 투쟁의 의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단협 준비 철저히하여 모든 조합원분들에게 한탄이 아닌 웃음을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 중심으로 현장 조직력 강화! 간부활동 혁신·역량 강화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자! 현대위아안산지회

힘차게 출발한 4기 집행부는 간부역량 강화와 조합원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간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행동으로 실력있는 간부를 양성하여 현장투쟁 선봉에 설 것 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창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조합원 중심 운영체계를 만들 것 입니다.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현장투쟁으로, 작은 실천들을 발판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 또한 함께 할 것 입니다.

3.8 여성의 날과 함께 13기 여성위원회 출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보랏빛 아이টে를 갖춘 경기지부 조합원들도 함께 했다. 지부 여성위원회는 1만 명 조합원 중 1,500명이 넘는 지부 여성조합원 모두에게 가닿는 활동을 목표로 '여성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금 삶의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무엇이 가장 힘든지, 노동조합을 어떻게 느끼는지, 더 가까이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 예정이다.

모두에게 가닿겠다는 마음을 담아 여성의 날 홍보물 품으로 씨앗연필을 만들어 지부 전체 여성조합원과 사내 필수노동자(청소, 식당)들에게 배포했다. 연필을 다 쓴 후 거꾸로 흙에 꽂고 물을 주면 씨앗이 피어난다. 여기저기서 여성조합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새싹이 피어나길 기대하며!

